

이 대통령 주목...강진 반값여행·신안 햇빛연금·광주 통합돌봄

# 인구경제·기본소득·기본사회 통합특별시 청사진으로

시, 강진서 우수정책 설명회...정책 성과 전국 확산 모색  
반값여행·햇빛연금·통합돌봄...통합특별시 청사진 확산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강진의 반값여행, 신안의 햇빛연금, 광주의 통합돌봄 등 지역 우수정책이 통합특별시의 인구·경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비전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강진군 웰니스푸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서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진짜 실행해 본 경험과 거기서 얻은 성과다. 모두가 부러워할 통합특별시를 함께 완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강진의 반값여행에 대해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구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며 “인구 3만의 강진은 연 300만명이 찾는 도시가 됐고, 지역화폐 소비도 46%가 늘어난 대한민국 대표 생활인구도시이

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생활인구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이 돈은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흘러간다. 지역에 돈이 돌아 시민이 성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안 햇빛연금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고 있다”며 “지역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 지방소멸을 막을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또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소득이 주민의 통장으로 직접 쏴지는 이 모델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선구적 사례”라고 말했다.

광주의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로 신청주의와 선별주의 벽을 넘어 누구나 돌봄시대를 열었다”며 “시장인 제도 아프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남광주특별시민은 갑작스럽게 다쳐도, 아이를 병원에 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강진군 웰니스푸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인구·경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려갈 사람이 없어도, 일상적 건강관리가 힘들 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강진, 신안, 광주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미래구상도 제시했다.

강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27개 시군구 모두를 ‘생활권 인구 10배, 지역소비 10배’

의 ‘텐던도시’로 만들고, 신안 모델을 통합특별시의 햇빛·바람소득, 데이터소득, 참여소득 등으로 확장해 ‘기본소득의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다.

또 광주의 경험은 이미 기본사회 돌봄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태어난 곳이 어디든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이 돌봄을 받는 기본사회 돌봄이 실현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강진군·신안군과 함께 강진군 웰니스푸스센터에서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역 우수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강진군의 ‘반값여행’,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등 세 가지 정책을 집중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진 반값여행, 신안군 햇빛연금 등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주문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명시됐으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3월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수산업 생산·가공 구조 종합 재편”

민행배, 완도 전북 양식장·5일장 방문...애로 청취 불법 김 양식·가공시설 부족 등 수산업 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행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이 완도를 찾아 수산업 생산·가공 구조 전반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10일 완도지역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장 질서와 생산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며 ‘경정 투어’를 진행 중인 민 의원은 이날 완도읍 5일장과 망남리 전북 가두리 양식 현장 등을 방문해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간담회에서 완도 어업인들은 불법 김 양식 시설 확산에 따른 어장 질서 혼란과 전복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 가공시설 부족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호소했다.

고종안 한국김생산어인연합회 완도군 지회 회장은 “김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양식 시설이 늘어나면서 어장 영양분이 고갈되고 물길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당한 면허를 가진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어장 질서와 생산·가공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또 “물김은 채취 후 하루 안에

가공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데 가공시설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장 질서 확립과 가공 인프라 확충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어민들과 소통하며 생산 구조와 가공시설, 어장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섬 지역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은 전북 가두리 양식 작업 현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함께 양식 작업을 체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민 의원은 11일 광안과 순천을 방문해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 투어 일정에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민행배

## “전남광주, 국가 미래 성장 핵심 구축”

김영록, 권역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비전 등 제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예비후보가 10일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Y-4노믹스’ 비전을 제시했다.

Y-4노믹스는 전남·광주를 4대 권역으로 재편해 새로운 수직 성장축(Y-Core)을 구축하겠다는 국가 경제 전략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선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권을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바이오 중심 글로벌 메가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와 AX 실증밸리, AI 모빌리티 신도시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화순을 연계한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조성해 초광역 의료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동부권은 로봇, 우주항공, 수소,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거점으로 만든다. 피지컬 AI와 로봇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이차전지 핵심원료 산업과 로봇용

반도체 팹을 육성해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석유 화학은 고부가 산업으로, 철강은 수소 환원제철로 전환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 재편하고 LNG 터미널과 수소배관망, 수소화합터미널을 갖춘 수소산업 고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서부권은 RE100 산업기지 조성,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에너지, AI,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 무안국제공항을 반도체 항공물류 관문으로 육성해 항공특화 MRO 산업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남부권에는 K-푸드,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

농수산·가공·유통을 연결한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식품산업 모델을 도입해 친환경·저탄소 생산체계를 확립, 국내 100대 식품기업 유치는 물론 전연령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5 문화·관광수도 비전’, 광주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한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 및 관광단지 조성, 27개 시·군·구로의 특별시의 권한 및 재정 배분도 제시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통합특별시장 경선기간 최대 보장”

신정훈 “출속 선거 우려...통합 후 시민 정치참여 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신정훈 의원(사진)이 10일 “통합 특별시장 경선이 역대 어떤 지방선거보다 빠른 일정”이라며 “경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남·광주는 지난 3월 2일에서 최종 통합된 뒤 15일도 지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신설된 ‘전남광주’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다른 시·도보다도 가장 먼저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일정을 발표했



신정훈

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유권자에 대한 무례이며 후보자와 한미디 상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당 일정에 따라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 실명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의 특성을 품으며 따져보고 예상되는 문제들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고려와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신하 기자 goback@

서 첫 정치 참여인 만큼 졸속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기간이 허용하는 한 다른 지역 경선 일정과 순번을 바꿔서라도 통합 지역의 경선 일정에 시간적 여유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의 특성을 품으며 따져보고 예상되는 문제들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고려와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신하 기자 goback@

## 강진원 군수 “민주당 경선 참여 보장해야”

경선 배제 지속 땀 무소속 출마 가능성...선거 구도 변수

자적정치 정계 논란에 휩싸인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사진)가 더불어민주당에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음에도 당내 경선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강진군수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상황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강 군수에게 불법 당원 모



강진원

집과 관련해 ‘자적 정치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6개월로 감경됐지만, 당규상 해당 징계가 유지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강 군수는 이에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6일 이를 인용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예비후보 자격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진보당 통합특별시장 후보에 이종욱

김선동 전 의원과 단일화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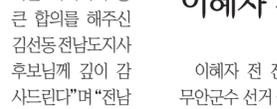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종욱 민주노동당 후보(사진)를 추대했다.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종욱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에서는 광주시장 후보로 이종욱 후보, 전남도지사 후보로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전남·광주가 40년 만에 통합을 이루면서 시·도당은 속의 끝에 이종욱 후보를 통합시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종욱 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장 단



이종욱

일 후보로 저 이종욱을 지지하며, 통합을 해준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도민, 광주시민의 뜻을 가슴에 새겨 후보의 전성기를 열기 위해 출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통합을 계기로 수도권에 예정된 반도체 산업단지의 호남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용인에 추진 중인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마련된 호남으로 이전에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이혜자 전 도의원, 무안군수 출마 선언

이혜자 전 전남도의원(사진)이 10일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자 무안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된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안의 백년대계를 완성하겠다”며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예비후보는 무안이 ‘전남의 수도’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농촌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행정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안



이혜자

도약을 위한 5대 핵심 비전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스테이더 기반 스마트농업과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KTX 개통 지원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남·광주 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에 대비한 무안 차관 및 경제적 실의 확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정주환경 개선을 △군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소통 행정 구현 등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